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역량 높인다

제1기 연수 진행...오기영 충남대 교수 등 강연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진로상담 능력 등 중요”

전남도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교육 과정의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10일 1박2일 동안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일반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제1기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계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착을 위해 단위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의 학업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 날 오기영 충남대 교수는 ‘미래교육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윤운구 한양사대부고 교사는 대입제도 및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20명씩 5개 분반으로 나눠 ‘학업 설계 및 이수지도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실습이 이뤄졌다. 첫 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

설계와 과목선택 실습,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에 따른 과목 이수 모형을 모듈별로 연구하고 발표하며 현장 적용 능력을 끌어올렸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들으며 고교학점제의 시각을 넓히고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 학교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끝없이 고민하는 연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교사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상담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학생의 진로 및 과목선택 상담, 학습설계 지도, 학업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전남도내 일반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계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참가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市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서구와 상생 협력·공유 활성화 업무협약...학교시설 활용방안 등 모색

광주시교육청이 현안 과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실에서 서구와 ‘지역-학교 간 상생 협력·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시교육청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자치구별 교육 진흥 TF의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시교육청과 서구는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현안 과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내용은 ▲학교 문화·체육·복지시설, 주차장 등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 모색 ▲다양한 자원·역량을 상호



공유 및 활용해 사회·교육문제 공동 대응 ▲마을교육공동체 실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지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이용,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이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의 유휴시간대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개방해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올해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기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나아가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지역주민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기부 거점센터’ 선정

3년간 1억5천만원 지원받아...교육 격차 해소 역할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가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로 선정됐다. 12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주관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전라·제주권, 충청·강원권, 경상권 등 4개 권역별로 1개 거점기관을 선정하는데, 최근 전라·제주권 거점대학으로 전남대가 선정됐다. 거점지원센터는 3년 동안 연간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는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에듀테크·디지털 인문학 기반 지역 교육공동체 연대 강화 및 성과 확산 ▲AI 기반 지역 교육공동체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류지현 소장은 “호남과 제주지역 중에서도 특히 도서벽지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기자

조선대, 광주 유일 ‘메이커스페이스’ 개소

제조 창업 위한 3D프린트 이용 등 IT·바이오·헬스 특화 전문 랩

조선대학교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제조 창업을 위해 3D프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개소했다. 12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메이커스페이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제조 창업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조선대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에 선정, 오는 2028년까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약 32억원이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조선대 입학할 지

하 1층과 지상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협의에 따라 유동적인 이용도 가능하다. 이곳은 IT·바이오·헬스 특화 전문 랩으로 고강도 부품 및 지그를 생산, IT·제조·목업에 활용할 수 있는 3D프린터와 의료·주류리 분야에 쓰이는 의료용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고속조각기(CNC 라우터), 레이저커팅기, UV프린터, 목공장비 등이 설치됐다.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있는 학생과 지역민은 누구나 장비를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김대기자

동신대, 10억 상당 기업 투자 유치 ‘눈길’

마이크로바이옴웨이징사업단, 크린앤사이언스와 협약

동신대학교가 지역에 1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웨이징사업단이 지난 9일 대정4관 1층 강의실에서 전남식품산업연구원, 크린앤사이언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전북 김제에 본사를 둔 크린앤사이언스는 나주에 지사를 설립하고 10억원 규모의 친환경 바이오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투자 기업 유치는 동신대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웨이징 기

술개발 사업에 선정된 이후 처음이다. 사업단과 전남식품산업연구원, 크린앤사이언스는 앞으로 곡성 운석의 특허 균주와 제오라이트를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개발과 제품·산업화 추진 등에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지역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기자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